



독일건설노조의 교육훈련활동

1990년 3월 독일건설노조자 30만명이 본에 모여 정부의 법정 약관 후 수급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사엘 케터

독일건설노조 코볼렌츠 지부 사무장

미사엘 케터(Michael Koether)는 1963년생으로 독일건설노조 코볼렌츠 지부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케터씨는 3월 중순 방한하여 건설노련과 건설일용노조에 독일건설노동조합을 소개하는 모임을 가졌다.

1. 독일건설농업환경산업노동조합

「독일건설농업환경산업노동조합」(IG-BAU)은 1869년 미장공 노동조합으로 시작한 독일건설산업단일노동조합인 「건설-석재-토지산업노동조합」(IG-BSE)이 1996년 1월 1일자로 독일원예농업산림노동조합과 통합한 노조로 6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갖고 있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전체의 대부분인 IG-BAU는 주차원의 지방본부 13개와 시군차원의 지부 150개를 가지고 있다.

노조의 중앙본부, 지방본부, 지부에서 종사하는 전임활동가와 행정직원은 1996년 말을 기준으로 1,181명으로 조합원 586명당 노조직원 1명이 있는 셈이다. 이중 276명은 중앙본부에, 나머지 905명의 전임활동가와 행정직원들은 지방본부와 지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노조중앙집행위원회의 담당위원이 하고 월급 또한 본부 노

조에서 일괄 지급된다.

2. 독일건설농업환경노조의 교육훈련활동: 노조전임조직활동가 훈련과정

IG-BAU는 전임활동가와 직원들의 전문 능력과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들은 「노조 직원을 위한 단체교섭 위원회」, 「노조중앙집행위원회」, 「IG-BAU종업원평의회」의 “노동조합 교육, 전문교육, 직무향상 교육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컴퓨터작업, 전화상담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강좌가 매년 열리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활동을 담당하는 전임활동가를 위해서는 지부의 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언론다루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G-BAU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중 가장 중요하고 비용과 기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조전임조직활동가(주로 지부 사무장)에 대한 교육이다. 노동조합전임활동가에 대한 교육은 노조교육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노조교육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인사담당자, 중앙집행위원, 지방본부집행위원장, 노조의 종업원평의회대표, 지방본부위원장, 지부 사무장으로 구성됨.)

노조전임조직활동가 훈련과정에 참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

- 1) 중학교졸업 및 공인된 직업훈련수료
- 2) 25세~40세
- 3) 건설농업환경산업노동조합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직업에서 최소한 5년간 근무
- 4) 건설농업환경산업노동조합이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최소한 5년이 된 경우
- 5) 노동조합활동가로서 최소한 3년간 활동
- 6) 초 지역차원의 노동조합교육과정 참가
- 7) 노조전임조직활동가를 위한 선발세미나 참가
- 8)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현장을 뛰어다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노조전임조직활동가 훈련과정은 다양한 다섯 가지 과정을 모두 23개월(2년)에 걸쳐 받는 것인데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부 실습과정 (기간 8개월)

조직활동가 실습과정은 노동조합의 현장조직 기구인 지부의 조직활동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8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지부에서 지부장과 사무장의 업무 와 활동을 보조하

면서 활동가로서의 능력을 쌓는 것이다. IG-BAU에는 150개의 지부가 있지만,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지부는 우선 규모가 커야하고, 다양한 활동분야와 직종별 모임이 활발해야 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지부들과 협력 작업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독일 전역에 걸쳐 20여개의 지부가 노조활동가를 위한 지부로 한정되어 있다. 이 지부의 지부장과 사무장은 임의로 노조활동가의 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노조활동가의 교육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특별교육을 받는다.

독일노총 노동대학 과정 (기간 11개월)

독일 건설노조의 노조전임조직활동가 훈련과정에는 독일노총(DGB)이 운영하는 노동대학(Akademie der Arbeit)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11개월 동안 진행되는 독일노총의 노동대학 과정은 노동법, 사회복지제도, 경제학, 철학입문, 사회 문제점, 사회학,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따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독일노총의 노동대학은 연맹소속 산별노조들의 노조활동가를 대상으로 앞의 내용으로 이론교육을 학교수업처럼 실시한다.

노동대학의 교육에 참가하려면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노동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생들은 기숙사에서 합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때 독일노총은 교육생들에게 한 달에 용돈으로 40만원 정도를 지급하며, 교육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임금은 회사가 주지 않으며, 독일건설농업환경산업노조가 지급한다.

지방본부 실습과정 (기간 1개월)

지방본부에서의 교육은 조직활동가가 지방본부 차원의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참가하고, 지방본부 조직의 집회나 모임을 준비하고 참여하며, 산하 지부들을 연결하고 지방본부의 언론다루기 활동을 배우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독일노총 법률상담소 실습과정 (기간 1개월)

독일노총 법률상담소에서는 노동법과 사회법에 대해 공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법원에 제소하고 재판에서 조합원을 대변하는 활동을 배운다. 독일노총의 법률상담소는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사무소에서 한달 동안 법률상담 담당자와 함께 일한다.

노동조합 이론교육 (기간 2개월)

노동조합 이론 교육은 다양한 주제를 갖고 세미나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동조합 조직기구와 편제, 지부 지방본부 중앙본부의 협력활동, 중앙집행위원회 활동,

사회복지기금, 단체협약법, 노동법, 단체협약정책, 단체교섭구조, 조합원을 다루는 활동을 교육한다. 이 교육은 노동조합 교육관에서 이뤄지는데 내용에는 독일노총 노동대학 입학시험준비도 포함되어 있다.

위의 훈련과정이 끝나면 교육생은 각 과정의 책임자로부터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측정하는 기준들에 따라 점수를 받는데 이들의 인사배치를 위한 참고자료가 된다.

3. 나의 경험

내 경우 노조전임조직활동가훈련을 받기 전에 1990년부터 1993년 6월까지 코블렌츠 지부에서 임시 사무장으로 활동을 하다 1993년 7월부터 앞의 모든 과정을 이수했다. 8개월에 걸친 지부 실습은 지부 3개에서 받았는데, 처음 일한 지부는 지부장과 지부 사무장 1명이 활동하는 조합원 4000명 규모로 이곳에서는 지부 사무장과 현장을 방문하거나 청년모임활동에 참가하였다. 이곳 지부에서 3개월 동안 일한 다음 노동조합교육관에서 한달 동안 이론교육을 받으면서 독일노총 노동대학 입학시험 준비도 하였다. 당시 우리 노조에서는 노조전임활동가훈련과정에 있는 동료 6명이 함께 노동대학에 입학했었다. 원래는 노동대학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노조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부터 정상월급을 지급하였다.

1993년5월2일부터 1994년3월말까지 노동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기숙사에서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살았는데, 교육생은 모두 38명으로 각 산별노조의 전임활동가와 열성조합원들이었다. 나이 차이도 다양하고 지역별, 노조별, 개인 차이도 각각이었지만, 모두 노동조합 활동가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한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주 모여 토론하면서 다른 노조의 활동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육시간이외에 우리는 자체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몄는데, 예를 들어 술집운영위원회를 뽑아서 1주일에 한번씩 기숙사 지하실에 주점을 열어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토론도 했다. 주말에는 집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기숙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국장도 가고 놀러 다니기도 했다. 11개월간의 노동대학 교육기간은 내게 의미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아직도 교육생들이 매년 한번씩 모여서 2박3일로 놀러 가고 친했던 친구들과는 연락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대학을 졸업한 후 1개월간 코블렌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독일노동조합연맹의 법률상담소에서 한달 동안 일했는데 여기서는 원래 법률상담소의 업무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교육목적이었으나, 법률상담소의 담당자가 조합원들을 직접 상담할 때는 비밀

보호라는 명목으로 듣지도 못하게 해 실전같은 교육을 기대했던 나는 무척 아쉬웠다. 조합원을 위한 비밀보호 조치를 이해하지만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나로서는 실제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웠다는 생각이 많았다.

이후 베를린에 있는 한 지부에서 7주를 일하게 되었는데 이 지부는 조합원수가 14,000명이나 되는 큰 조직으로 사무장만도 5명이다. 사무장은 각각 전문분야, 즉 청년 조직, 종업원평의회, 법, 사무직노동자 따위를 담당했다. 이 지역에 파견될 때 지부장이 월요일 9시까지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공문을 내게 보냈는데 일요일에 집에서 출발하지 말고 월요일에 출발하라고 강조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베를린까지는 자동차로 7시간 가량 걸리는데 월요일 9시에 사무실로 출근하라면서 집에서 월요일에 출발하라는 것은 나보고 월요일 자정을 넘어서 출발하라는 말이다. 지부장이 일요일에 출발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일요일에 베를린에 도착할 경우 호텔비가 들기 때문에 이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결국 나는 월요일 새벽 0시 30분에 출발해 자동차로 밤새 달려서 아침 8시경에 사무실에 도착해 하루종일 졸리고 피곤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도 새롭다. 게다가 지부의 사무장을 휴가가 내 실습시간과 협쳐 청년모임과 현장조합원을 직접 상담하는 사무장하고만 일해야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부장이 자기업무를 관료적이고 무성의하게 처리한다는 느낌만 갖게 되었다. 다른 동료들은 지부에서 많은 것을 실습했고, 또 좋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기 않았던 것 같다.

지방본부 실습은 산하 코블렌츠 지부일이 급해 나를 지부로 다시 보냈기 때문에 전혀 하지 못했다. 물론 원칙과 교육목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반대할 입장은 못되었다.

23개월의 훈련과정을 채우기에는 두 달이 더 남았지만 코블렌츠 지부의 사무장으로 정식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노조활동기훈련과정을 마쳐야 했다.

처음 지부의 입시사무장으로 채용되었을 때는 노동조합의 실제활동을 거의 몰랐다. 나의 채용과정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는데, 1990년 당시 내가 현장감독으로 직업훈련 과정에 있었는데 노조 지부의 집행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부 사무장이 공석이니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해서 동료들이 나를 추천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노조전임활동가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조활동에 대해 사전지식도 없었고 지부 사무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노동조합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노동대학을 비롯한 노조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교육훈련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지부 사무장으로서의 임무와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